

봉투의 소망

고 성 자

보이지 않아도 다 보인다

노란 가을 햇살 보듬고
도란도란
소곤거리는 이야기들이 터뜨리는
달콤하고 신 웃음

오목한 주먹 안에서
한 움큼 잡히는
갓난쟁이 굴
바람 부는 날엔 구수한 냄새로 담겨진
군고구마

행여 누군가 옛 복까
길모퉁이 돌기도 전
앞서 달려가는 성급한 마음을
소담스럽게 물들이는
저녁 노을의 봉투